

(방) (역) (정) (보)

병충해방제 차원에서 적극추진

들쥐로 인한 식량의 피해를 없애자!

농수산부 식물방역과
남 영 락

쥐는 옛부터 인류와 역사를 같이 하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일화도 많지만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없애는 등 인간을 괴롭혀온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옛풍습에도 쥐를 잡아 없애기 위해 음력 정월 첫번째 자일(子日)에 농가에서는 “쥐복이”라 하여 쥐를 복아 죽인다는 뜻으로 콩을 볶는 풍습이 있는가 하면, 정월 보름

에는 쥐를 쫓는 뜻에서 쥐불놀이를 하여 논밭두렁에 불을 지르고 고함을 질러 쥐가 놀래 멀리 도망치게 하는 풍습도 있는 것이다. 이런 옛풍습을 보더라도 쥐를 없애기에 무던히도 고심하였던 것이 역력히 나타나며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 재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들쥐가 90%이상 차지

세계적으로 쥐의 종류는 무려 170여종에 달하고 있으나 다행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쥐의 종류는 대략 12종이 있으며 이중 주로 우리 주변에 살면서 피해를 주는 종류는 시궁쥐, 곰쥐, 생쥐, 들쥐 등 4종이라

하겠다. 특징을 보면 “시궁쥐”는 체구가 가장 크고 주로 집내부, 하수구, 창고 등에 서식하며 “곰쥐”는 일명 “지붕쥐”라고도 불리며 시궁쥐와 비슷하지만 체구가 약간 작고 날씬한 편이며, 긴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정을 잘 기어 오르내리며 페스트(흑사병)을 옮기는

주범이기도 하다.

“생쥐”는 체구가 아주 작은 쥐로써 몸집이 작아 많은 식량을 먹어 치우지는 않지만 책이나 옷 등을 못쓰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 “등줄쥐”는 주로 들에 서식하는 들쥐로써 90% 이상을 차지하며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쥐라 하겠다.

2. 한쌍, 연간 1천마리로 늘어

쥐는 번식력이 매우 강한 동물로써 생후 3개월이면 수태할 수 있고 1년에 4~6회 즉, 2~3개월마다 새끼를 낳으며 한번에 낳는 새끼 수는 6~12마리로 평균 9마리를 번식한다고 한다. 이렇게 볼때 쥐 암수 한쌍이 1년동안 1,250마리로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주로 봄과 가을철에 번식이 왕성하고 늦여름과 겨울철에는 거의 번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다.

◇ 쥐 종류별 번식력

	임신기간 (일)	1회 생산년 마 리 수	간 번식회수
시 공 쥐	21~23	6~12	3~6
곰 쥐	21~23	6~12	3~6
생 쥐	18~21	4~12	5~6
등 줄 쥐	23~26	4~8	4

3. 하절기엔 농작물에 피해

쥐는 거의가 동절기에는 농가에서

활동하며 피해를 주고 있으나, 하절기에는 그 활동범위가 넓어져 농가 부근 150m까지 나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등줄쥐는 동절기에도 농가보다 거의 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 쥐의 활동범위

종류	절기	동 절 기	하 절 기
시 공 쥐	농 가	농 가	농가주변 100m 이내
곰 쥐	농 가	농 가	농 가
생 쥐	농 가	농 가	들 2% 이내
등 줄 쥐	농가10~20%	농 가	들 95% 내외

이상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쥐는 세계적으로 볼때 사람 1일에 3마리 꼴(한국일보 '83.9.1 참조)이 살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세계인구 42억으로 볼때 약 126억마리의 쥐가 살고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도 약 1억 2천만마리(추정)의 쥐가 살고 있어 인구의 3배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쥐잡기 작업이 잘되어 있는 美國은 인구수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되고 이웃 일본에도 인구수와 비슷한 수(한국일보 83.10.20)를 나타내는 것을 볼때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는 이 마당에서 쥐의 서식밀도를 낮춰야만 한다.

4.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 초래

쥐가 우리 인간생활에 끼치는 피

◇ 들쥐로 인한 식량피해를 없애자 ◇

해는 매우 다양하다. 쥐의 피해를 보면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를 나눌 수 있으며 직접적인 피해를 보면 쥐는 항상 잡는 습성이 있어 각종 시설물, 포장재료, 비싼 의복류 등을 잡아 못쓰게 만드는가 하면, 농작물을 가해하여 엄청난 감수를 보게 하는 한편 많은량의 식량을 먹어 없앴으로써 식량이 부족한 우리에게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 쥐의 먹이 섭취량

		1일 먹이 섭취량 (g)	년간먹이섭취량 (kg)
시궁쥐	쥐	10~20	3.5~7
곰쥐	쥐	10~15	3.5~5.5
생쥐	쥐	1~2	0.4~0.8
등줄쥐	쥐	3~5	1.0~2.0

간접적인 피해로는 쥐구멍을 통한 연탄가스 유출이라던가, 전선을 잡아 화재를 일으키는 일, 더 나아가서는 페스트, 장티푸스, 발진티푸스를 비롯하여 서교열, 유행성 출혈열 등 무서운 전염병을 옮긴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다.

최근 유럽에서는 “톡소플라스마”라는 무서운 병이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쥐가 옮긴다는 사실(한국일보 '83.9.1 “이런 위험이 당신을 노린다”에 발표됨)이 입증되었으며 이 병은 뇌속에 딱딱한 석회질을 만들고 임산부가 이 병에 걸리면 사산

등 이상분만을 하거나 기형아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탈모증, 간질병, 정신분열증 등도 일으키는 큰 문제병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병을 매개하는 쥐의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큰 피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농민 자율사업으로 유도

쥐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주로 벼, 밀, 보리, 옥수수 등 곡류를 비롯하여 콩, 땅콩과 같은 두류에 피해가 많으며 고구마, 고추, 오이, 참외 등의 채소류와 사과, 감귤같은 과수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벼에 있어서는 유수형성기부터 출수기 사이 이삭이 패기전에 벼줄기를 잡아 단물을 빨아먹으며 습격받는 벼포기는 벼이삭이 패지 못하고 결국 말라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병충해로 인한 피해보다 그 결과가 더 크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는 이를 병충해방제 차원에서 다루기로 하고 들쥐잡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한 것이다.

〈'84 들쥐잡기사업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농민 자율사업으로 유도
- 방제 대상작물의 점진적 확대
- 시범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제고
- 각종 「매스컴」을 통한 「봄」조성
- 우수약제의 개발 유도

2. 추진계획

○농민 자율사업으로 유도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확대

○대상 작물별, 피해시기별로 구분하여 적기방제 추진

○효과 거양을 위하여 벼조생종 출수기 및 중반생종 유수형성기에 시·도 단위로 「일제방제일」을 설정 투약 실시

○지역 방제협의회에서 약제 및 소요량을 자율 결정

○농협을 통하여 약제확보공급

○대상작물별, 투약시기 및 투약방법 등에 대한 대농민 계몽지도 강화

3. 사업계획(503천ha)

○1차 : 5월하~6월 상순(백류출수기, 감자피경비대기) 45천ha

○2차 : 7월 상중순(조생종벼 출수기, 중반생종벼 유수형성기) 444천ha

○3차 : 9월 하순(고구마 피근비대

기) 14천ha

—◇—◇—◇—

위와같은 사업을 전개하므로써 들쥐의 서식밀도를 최대한 낮추어 농민이 애써 지어놓은 농작물의 피해를 극소화 하는 한편 집쥐까지도 그 수를 줄여 간접 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쥐잡기사업이 비록 소의된 사업이기는 하나 식량절약과 국민보건적인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 이는 어느 기관에서만 주관하고 한정된 농민들만이 하는 사업이 아닌 모든 기관과 모든 국민이 다같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써 전개되어야 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의 선진조국에서는 쥐를 의식하여 “쥐볶이”나 “쥐불놀이” 같은 쥐잡기로 인한 풍습이 다만 지나간 하나의 풍습에 의한 놀이로 전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